

# 푸틴, 평창 개인 참가 'OK' 러시아 선수들 "무조건 GO"

빅토르 안,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거리에 마련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부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마스코트를 선물하던 모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선수들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도핑 사태와 무관한 선수들이 구제될 길이 열렸다.

푸틴 대통령은 7일(한국시간) "우리 선수들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개인 자격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국가가 주도한 도핑으로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핑과 무관한 선수에 한해서는 개인 자격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러시아 소속이 아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를 뜻하는 OAR(Olympic Athlete from Russia) 자격으로 경쟁해야 한다. 금메달을 목에 걸어도 시상식장에는 러시아 국가가 아닌 '올림픽 찬가'가 울려 퍼진다.

푸틴 대통령이 개인 자격 출전을 원하는 선수들에게 족쇄를 채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제 스포츠계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가 IOC의 결정에 반발,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면 스포츠계에서 '왕따'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로서는 IOC와 전면전을 벌여서 좋을 것은 없다.

4년 간 평창을 위해 땀을 흘린

선수들에게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아직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푸틴 대통령이 출전에 무게를 두면서 변수는 사라진 분위기다. 도핑에서 자유로운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평창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피겨스타이자 3년 전 소치대회에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1)의 코치로 참가한 예브게니 플루센코(35)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수들은 올림픽에 가자. 이번 대회가 마지막 올림픽이 될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피겨는 전성기가 짧은 만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 아이스하키의 대표주자인 알렉산더 오베츠킨(32)은 중립국 유니폼을 입더라도 평창행을 주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서 뛰고 있는 오베츠킨은 NHL이 소속 선수들의 평창행을 불허하지 "결정에 관계없이 무조건 뛰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올림픽에 강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일리야 코발츠크(34) 역시 "선수들은 무조건 가자"고 지지했다.

한국팬들은 빅토르 안(32·안현수)의 질주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빅토르 안이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평창에서의 화려한 피날레를 염원했던 데다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이콧 확률은 높지 않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동계스포츠대회에서 보여줬던 러시아 선수들의 뛰어난 경기력과 활약을 평창에서 다시 볼 수 있다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 자격 참가자들이 늘어나길 희망했다.

## "러시아, 제재 준수하면 평창올림픽 폐회식 국기 허용"

IOC "징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는 신호 될 수도"

IOC 집행위원회에서 국가가 대규모 도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선수의 신분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가 된다. 올림픽 휘장을 달고 뛰어야 한다. 러시아 선수가 메달을 따면 러시아 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가 울려 퍼지게 된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인도 선수들이 개막식에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했다. 인도올림픽위원회가 내부 문제로 인해 자격 정지 처분을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IOC는 6일 집행위원회에서 국가가 대규모 도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선수의 신분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가 된다. 올림픽 휘장을 달고 뛰어야 한다. 러시아 선수가 메달을 따면 러시아 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가 울려 퍼지게 된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인도 선수들이 개막식에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했다. 인도올림픽위원회가 내부 문제로 인해 자격 정지 처분



을 받은 탓이다. 하지만 대회 기간 인도올림픽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면서 인도 선수들은 국가와 유니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러시아 선수들도 4년 전 인도 선수들과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한편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소치올림픽에서 국가 주도 도핑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성적 박탈과 자격 정지를 받은 러시아 선수 22명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IOC 위원장, 러시아 평창올림픽 보이콧 회피 환영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선수들에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별적으로 참가하기로 허용한 것을 환영했다고 교도 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바흐 IOC 위원장은 전날(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이틀간 일정의 이사회 후 기자회견에 참석,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자격으로 출전하도록 용인하면서 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겠다고 밝힌 푸틴 대통령을 치하했다.

IOC는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도핑을 자행한 러시아의 선수단에

대해 평창 올림픽부터 참가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IOC는 러시아 국가와 국가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러시아 선수가 개별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다.

바흐 위원장은 도핑 문제에서 결백을 증명할 러시아 선수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흐 위원장은 엄격한 올림픽 출전 조건을 통과한 선수는 "깨끗한 러시아 체육계의 미래를 향한 기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바흐 위원장은 러시아 선수단을 올림픽에서 전면 배제하는 데

서 완화한 조치에 관해선 "타협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전날 자국 선수의 평창 동계 올림픽 개인 출전을 허용한다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IOC의 평창 올림픽 러시아 참가 불허 결정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어떤 종류의 차관도 발표하지 않겠다"며 "우리 선수 중 누구나 올림픽 참가를 결정한다면 이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러시아가 IOC의 결정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할 경우 러시아의 동계 스포츠스타들이 평창 올림픽 무대에 서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7일 일본 도쿄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2017 EAFF E-1 챔피언십' 남자부 공식 기자회견에서 4개국 참가팀 감독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중국 마르첼로 리피, 일본 바히드 할릴호지치, 북한 요른 안데르센, 한국 신태용 감독.

##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 "반드시 일본 이기고 싶다"

동아시아컵 2연패 겨냥 "최선 다하면 우승 따라올 것"

"대회 2연패를 노려보겠다." 2017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의 각오다.

신 감독은 7일 일본 도쿄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2017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기자회견에서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2회 연속 우승을 한 적이 없는데 이 곳에서 좋은 추억이 많다. 최선을 다한다면 우승이라는 글씨는 따라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

이날 회견에는 북한의 요른 안데르센(노르웨이) 감독, 일본의 바히드 할릴호지치(보스니아) 감독, 중국의 마르첼로 리피(이탈리아) 감독이 참석했다.

남자대표팀은 9일 오후 4시30분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중국과 대회 1차전을 치른다. 이후 12일 북한 16일 일본을 차례로 상대한다. 2015년 중국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은 2연패와 함께 통산 4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신 감독은 "솔직한 심정으로 모든 경기를 이기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마지막 상대인 일본팀도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은 좋은 라이벌 관계로 동반 성장하고 있다.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아시아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기고 싶다. 한일전은 양 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뉴시스

## 손흥민, 시즌 6호골 왕...토트넘, 아포엘에 3-0 승리

호날두는 모든 경기 골 진기록



손흥민(토트넘)이 꿈의 무대로 통하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다시 한 번 골맛을 봤다. 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UEFA 챔피언스리그 아포엘(키프로스)과의 H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초반부터 가벼운 볼놀림을 선보였다. 전반 3분 만에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감각을 조율해내 전반 7분에도 오른쪽 슈팅으로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1-0으로 앞선 전반 37분 손흥민의 득점이 터졌다. 페넬티 박스 바

깎에서 페르난도 요렌테와 2대1 패스로 수비수의 방해를 받아낸 뒤 간결한 왼발 슈팅으로 아포엘의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3일 왓포드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이후 2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6호골이다.

손흥민은 후반 20분 무사 데벨레와 교체돼 벤치로 내려갔다. 팬들은 기립박수로 환호했다.

토트넘은 요렌테, 손흥민, 조르주 케인 은쿠두의 릴레이 골로 아포엘을 3-0으로 꺾었다. 5승1무(승점 16)로 지난 대회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승점 13·4승1무1패)를 2위로 밀어내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를 3-2로 제압했다. 전반 12분 득점에 성공한 호날두는 조별리그 6경기에서 모두 골을 터뜨린 최초의 선수가 됐다.

E조의 리버풀(잉글랜드)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러시아)를 7-0으로 대파했다. 3승3무(승점 12)로 조 1위가 돼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리버풀이 마차를 타면서 EPL, 5개팀은 모두 토너먼트에 가세했다.

뉴시스

## KIA, 수석코치 정희열·퓨처스 감독 박홍식

2018 주요 코치진 개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18 시즌을 이끌어 갈 주요 코치진을 개편했다.

정희열 퓨처스 감독을 수석코치, 박홍식 타격코치를 퓨처스 감독으로 7일 선임했다.

그동안 퓨처스리그에서 선수 육성에 힘쓴 정희열 신임 수석코치는 김기태 감독을 보좌하면서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가교 노릇을 한다.

박홍식 퓨처스 감독은 합평



정희열 수석코치(왼쪽), 박홍식 퓨처스 감독

KIA 챌린저스 필드에서 퓨처스팀을 지휘하며 유망주를 발굴, 육성한다.

##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야구팬 800명도 참석한다

올해 프로야구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뽑는 '2017 타이거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3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선수들이 레드 카펫을 밟으며 시작된다. 유니폼을 벗고 수트 차림으로 등장하는 선수들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KBO는 시상식에 야구 팬 800명을 초청한다. 골든글러브 시상식 입장권은 8일 오후 2시부터 KBO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400명(1인2매)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